



符仁寺 石燈

五·五cm)를 이룬基壇面石이 埋沒되어 있어 注目되었다. 塔의 基壇 및 屋蓋等의 手法으로 보아 創建當時의 塔으로 新羅末期의 作品으로 推定되었는 바 境內에 散在하는 部分石(材屋蓋, 基壇部等)로서 復元이 可能할

것임에 當局의 施策을 期待하는 바이다.

二、拜禮石 및 石燈

法堂前庭中央에 拜禮石 一基와 缺損된 石燈 一基가 遺存한다. 原位置로 보이는 拜禮石은 花崗岩 一石으로 他例와 四面을 蓮瓣紋으로 돌린 것이 特異點이라 하겠는데 上面 蓮花紋의 手法과 더불어 石塔과 同代作으로 推定되었다.

石燈은 火舍石 및 相輪이 缺損되었으며 現位置로 移動된 듯하다. 方形 一石의 地臺石 위에 다시 方形의 下臺石을 받고 있는데 (一邊長 一一·九cm, 高 一一·三cm) 側面에는 二區의 眼象이 있고 그 위에 八瓣覆蓮座가 彫刻되었다. 上臺石 또한 八瓣仰蓮의 一石인데 그 上面에는 火舍石 받침이 八角四段을 이루었다. 八角竿柱의 高는 七六cm, 一邊幅은 一六·五cm이다. 屋蓋는 近年 下水道工事中 拜禮石으로부터 北方 四m地點에서 發掘된 것인 바 屋蓋받침은 三段을 이루었고 各面마다 隅棟形을 이루었으며 頂上에는 蓮花文이 彫려 있다. 相輪部는 缺失되고 屋蓋上에는 一彫刻石이 있어 注目되었다. 火舍石은 앞으로 調査復元되어야 할 것인 바 이 石燈은 眼象 蓮瓣 等의 纖細하고 부드러운 手法으로 보아 塔과 同代로 推定되었다.

三、其他

寺域內 石壇 위에는 羅代의 礎石等이 많이 殘存하며 石築이나 建物前庭에서는 塔石 및 石燈臺石이 散見되었고 特히 東方約三百米 相距에는 金堂址 或은 極樂殿址라 傳稱되는 二建物址가 있어 石燈臺石과 塔材가 露出되어 있었다. 또 寺址西方約一〇〇米 松林中에 浮屠群이 있다. 木造建物로는 近年 建立한 寮舍 三棟과 重修中인 大雄殿과 善德廟(註)가 있을 뿐이다. 寺址의 規模와 現存遺物의 重要性에 비추어 本調査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現狀에 對한 간략한 踏查(메모)를 記錄하는 바이다.

註: 符仁寺를 또는 「夫人寺」라 하는데 善德女王의 初創中이라 傳하며 이 洞里도 「夫人洞」이라 부른다. 「夫人」이라 함에서 比丘尼들만이 住錫하였다고도 한다. 善德廟에는 女王의 影頰과 그 臣下 群像圖를 奉安하였는데 約五十年前에 建立이라 한다.

中原郡 倉東里 五層石塔에 對하여

鄭 明 鎬

忠州市에서 西北方 約四km 俗稱 中央塔 (塔亭里七層塔 國寶第二七號)으로 向하는 道路邊 民家內(中原郡 可金 倉東里部落 金英基)에 石塔 一基가 있어 일찍이 注目된 바 없으므로 簡略히 紹介하고자 한다.

花崗岩方形의 五層石塔으로써 二層 基壇 위에 建立되어 있으며 一部の 破傷



倉東里 五層石塔

이 있으나 保存은 良好하다. 上·下基壇의 中石은 撐柱各一로서 區分되
었고 上層基壇은 一石造인데 上層甲石上의 初層塔身받침이 特大함은 注
目되는 바이다. 塔身과 屋蓋石은 各一인데 (第四層屋蓋와 五層塔身만은
一石) 塔身에 있어서는 第二層以上 減縮率이 매우 크며 屋蓋받침은 一、
二層은 四段 三·五層은 三段으로 安定感을 보이며 相輪은 露盤만이 남아
있다. 各部의 彫法은 鈍厚하나 石材의 結構는 整齊하고 身部와 基壇은
均衡을 얻은 佳作으로서 現高 八尺七寸三分, 下甲幅 五尺九寸八分 上
甲幅 四尺三寸一分. 이 塔은 原位置에 있다고 하나 所屬寺院은 不明이
며 年代는 高麗로 推定되었으나 後 重修가 있었다고 傳하며 日帝時
부터 數次賣買交涉이 있었다 한다.

「멘힐」(立石) 雜記

金 元 龍

巨石紀念物의 하나로서의 「멘힐」(menhir)은 주로 西部유럽에 많이
分布하고 있으며 英國、北阿、近東地方에도 퍼지고 있고 東洋에서는 南
쪽은 인도네시아, 버마, 北은 시베리아, 蒙古、韓國 等地에 있다. 이
것은 自然 石柱를 세운 것이며 어떠한 信仰의 對象物이었음이 틀림없
는데 우리나라에서는 全南 順天北方 立石里의 例나 또는 忠南 保寧郡 媚
山面의 例나 모두 南方式 支石墓 群在地에서 있어 興味를 끈다. 順天의
立石은 鳥居龍藏氏가 一九二二년에 紹介하고 있는데 (人類學雜誌三七卷
一〇號) 그의 一九一三年當時의 實見談에 依하면 그 立石에는 恒常 洞民
들이 새끼줄을 치고 벗질으로 덮을 뿐 아니라 「靈寶殿」(靈)으로 祠形처럼
만든 것, 〽을 그 위에 띄워 神體로서 祈願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順天
立石은 高一·二미터 程度의 圓錐形 石柱이며 石柱基部에는 塊石들이 散
在하고 있다.

以北에서는 有名한 通溝의 廣開土王碑가 元來는 「멘힐」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萬一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神道碑로 한 將軍塚은 그 立
石의 位置에 따라서 適當한 位置에 建墓한 것이 되는데 事理上 그리 自
然스러운 일 같지 않다. 어느 무덤을 쓰는데 碑石부터 먼저 考察하고 그
자리에 따라 墓地를 選擇한다는 것은 있을 법하지 않다. 이것은 亦是 墓
地를 먼저 選定하고 다음이 碑石이 될 原石을 어디서 運搬해왔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運搬해오기 前의 그 碑石原石이 果然 立石이었
는지 아닌지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지난번 東京博物館에서 볼
수 있었던 「문화유산」(五九—)에 依하면 平北 龍川郡 신암리에 도 立
石이 있으며 그 附近에서 環石斧가 採集되었다고 하며 또 平北 寧邊郡
남산리에서 發見된 高三·四五미터의 멘힐에는

「開闢舊物 桑海高邑」

이라는 刻字가 있다고 한다. 이 刻字가 어느 때 것인지 알지 못하나
古人들이 그러한 立石을 天地開闢時의 古物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滋味
있다. 다만 桑海高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잡짜기 모르겠다.

유럽의 立石은 大體로 靑銅器時代에 屬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것도 앞
에 말한 順天이나 保寧의 例로 보아 靑銅器時代에 屬한 것이 틀림 없을
것 같다. 그리고 立石의 性格에 對해서는 辟邪의 存在로서의 男性生殖器
崇拜와 關聯시켜 解釋할 수 있을지 모른다.

金正喜先生の簡札

鄭 然 權

日前에 偶然한 機會에 오랫동안 死藏되었던 秋史 金正喜先生の 書札
數枚를 入手하였는데 그 中의 하나가 阮堂이 濟州에 流配時 謫所에서
쓴 것으로 筆致는 老筆이라 할 나위도 없이 蒼蔚勁健 名筆인데다 內容이
또한 心琴을 울리는 바, 하도 좋아서 敢히 紹介하기로 하였다.

即問恁時